



19년동안 건축물 배관자재만을 전문으로 생산해온 평화플라스틱공업(주)은 「원터치 이음관」 「스핀 파이프」 등 신제품을 개발해 건축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누수(漏水)문제를 해결, 파이프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PVC 이음관 신제품 개발 평화플라스틱공업(주)



◀ 평화DRP는
하자보수가 간편하고
사용방법이 쉽고
설명하는 이종호사장.

“건축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누수(漏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파이프와 이음관입니다. 평화플라스틱공업주식회사는 바로 이러한 파이프 등의 건축물 배관자재를 전문으로 생산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배관재 전문 제조업체인 평화플라스틱공업(사장 李鍾鎬)은 1976년 종업원 7명으로 시작할 당시부터 기술개발을 위한 3대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건설한 기업이다.

「최고의 품질을 만들겠다· 새로운 신제품· 신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겠다· 훌륭한 인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바로 이런 정신이 있어서인지만 19년이 된 평화플라스틱공업이 품질우위정책을 편 결과는 엄청나다.

KS획득 17건,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공업규격인 JIS 표시 승인, 국산 신기술 인정 KT마크 획득(과기처), 특허기술상 수상(특허청), 기술혁신상 수상(공업진흥청).

출원한 특허도 4백여건

이처럼 평화 제품의 인증과 수상실적은 참으로 화려하다. 또한 평화플라스틱공업이 출원한 특허만도 발명·실용신안·의장 등을 합해 무려 4백여건에 이른다. 기술개발 뿐만이 아니라 인재양성에 있어서도 경영자 마인드보다 일선에서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까지도 신제품 개발의 마인드 선상에 가게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이사장은 설명했다.

이사장이 건축물 배관자재업계에 뛰어들 당시만 해도 「이음관」분야는 일부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PVC 이음관 본드 접착식 한가지 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접착식 이음관은 PVC 파이프에 본드를 발라 접착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접착력이 떨어져 물이 새거나 시공중 하자가 발생했을 때 파이프가 잘 빠지지 않아 이음관 부위를 잘라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보완돼 나온 제품이 「평화DRP」라고 이사장은 소개했다. 원터치 이음관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품은 내부에 고무링을 끼우고 이음관에 나사를 만들어 별도의 도구없이 2개의 파이프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고무로 연결돼 있어 충분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뿐만 아니라 절단을 하지 않아도 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자보수가 간편하고, 사용방법이 손쉬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주부사원도 시공이 가능해 신도시 아파트 건설회사는 물론이고 기존 배관설계를 수정하면서까지 찾는 업체가 있을 정도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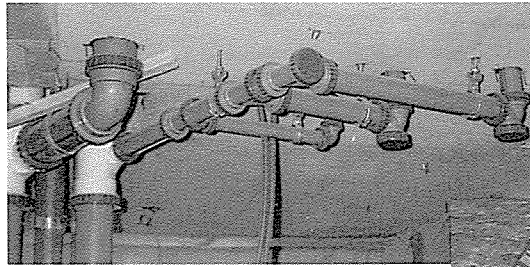
소음줄인 수직배수관 생산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이란 점에서 크게 각광받게 된 「평화DRP」의 1세대 사용량이 1백여개라 볼때 한달 생산량만 해도 6백톤에 이른다고 이사장은 귀뿔했다. 평화플라스틱공업이 이음관과 함께 승부를 걸고 있는 분야는 「파이프」이다. 이음관과 연결될 부분이어서 뿔래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파이프」.

평화플라스틱이 최근 개발한 「스핀파이프」는 고층 건물의 수직 배수관으로 쓰이는 PVC파이프 내부에 나선형 홈을 만들어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물이 홈을 타고 내려가게 하므로써 소음을 크게 줄였을 뿐 아니라 배수능력을 무려 10배나 증가시켰다고 한다. 아파트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끄럽게 물 내려가는 소리'를 해소하는데 이 스팀파이프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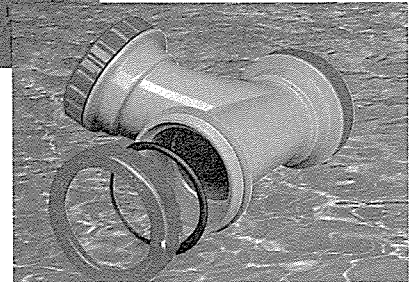
또한 기존의 PVC배수파이프는 물이 잘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통기관을 장착했지만 이 나선형 홈은 진공 제거기능을 병행해 두개의 파이프를 만들 것을 하나로 줄임으로써 크게 원가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평화」는 이 제품 하나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10개국에서 특허를 받는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무소음 드레인시스템」이란 평화의 신제품은 아파트 배관다나 오·배수관파이프



◀PVC파이프를 원터치로 연결하는 배수용 이음관 DRF가 사용된 대림산업 구리현장

▼PVC파이프를 원터치로 연결하는 배수용 「이음관 DRF」



가 만나는 폐수 유입구에 덮개를 만들어 폭포수와 같은 소음은 물론 지저분한 각종 냄새를 완벽히 제거해 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사장의 기술개발에 대한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차세대 플라스틱 파이프인 「하이크린」파이프를 개발, 올 10월 시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유해를 제거한 새 파이프 개발

이 제품은 그동안 물을 나르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수도관에서부터 완벽을 기하지는 것이다. PCV를 가공할 때 미량의 납성분이 들어갔으나 이 파이프는 이러한 유해 첨가물을 완전히 제거한 제품이다.

최근에는 90° 이상의 고온수에도 잘 견뎌내는 PVC파이프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이사장은 말했다. 이처럼 기술개발에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고 있는 「평화」의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건설현장의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파트 주민일 수도 있다며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놓치지 않고 메모하는 것이 아이디어의 비결이라며 비결이라고 설명하는 이사장.

아이디어 제공에 있어서도 뒤지지 않는 이사장은 평화(平和)라는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은행의 제의에 누구를 위한 은행이라는 질문에 노동자를 위한 은행이라는 단 한마디에 OK해 평화라는 상표권을 무상양도할

정도의 호탕함을 지니기도 했다.

그는 앞서 설명했듯이 기술개발을 위한 3대 정신을 뒷받침할만한 기구로 「신제품개발위원회」를 따로 둘 정도로 제품개발에 열을 올렸고 「특허과」를 신설, 국내의 기술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열성을 보여주었다. 「특허과」에 대해 「우리나라 제조업체가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나 세계무역기구가 탄생된 만큼 무한경쟁시대에는 자기가 만든 제품을 법적으로라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두게 되었다」고 설명.

그리고 제조업체라면 제품개발이 일상적이어야 하며 특허청에 등록되었다면 상품화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하는 이사장은 개인 발명품이 산업체와 연결돼 상품화되는 공동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산학연 협동에 대한 평소 지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대기업으로 가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독보적인 배관자재 전문기업으로 남고 싶다」는 것이 그의 기업관이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